



배포 일시	2023. 2. 26.(일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홍 철 (044-201-4990)
			사무관 김병철 (044-201-3521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원희룡 장관 “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”

- 26일 전문건설업체 간담회에서 수도권·부울경 피해사례 대응방안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(서울·경기·인천 철근·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) 사무실에서 “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”를 개최하였다.
 -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 현장에서 만연한 소위 ‘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’ 피해사례를 주제로,
 - 서경인,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.
- 이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‘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’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.
 -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, 소위 ‘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’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, 최대 월 1,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하였다.
 -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,000만원, 최대 2억 7,000여만원까지 지급되었고,
 -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,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,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하였다.

-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‘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’ 등의 근태 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.
-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게 관행이며,
 - 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‘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’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.
-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채용 구조에 대해,
 -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하여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하며,
 -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소위 ‘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’ 으로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,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하였다.
- 이러한 업무 해태 시 사용자가 지휘·감독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·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,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, 일당을 챙긴다” 며,
 - “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,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” 고 지적했다.
 - 아울러, “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,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” 해달라고 당부하며,
 - “일 안하는 팀·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” 이라고 말했다.